

가족형태 및 개인 특성이 부부간의 친화도에 미치는 영향

김 초 강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개 요	III. 결 론
I. 서 론	참고문헌
II. 본 론	

개 요

남남끼리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한 가정의 주인으로 인생을 함께 하는 긴 부부기(Family life cycle)동안 서로가 가졌던 개인특성과 결혼조건 및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공히 대화의 장을 열고, 신뢰하며 조건을 극복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대화가 적고 갈등이 많으며 가정경제마저 넉넉치 못하면 부부위의 문제와 더불어 와해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7,081명의 유배우가임부인들의 개인별 특성과 결혼조건이 부부친화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연구한 본 논문에서 부부상호 만족집단이 50%, 불만족집단은 24%, 그저 그렇다와 분류미상 집단이 26%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특성은 전체 대상자의 79%가 도시에 거주하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0%를 상회하며 초혼연령은 24세 미만이 75%, 결혼연령차는 없거나 남편이 적은 경우가 11%이었다.

가족특성은 남편이 장남인 경우가 45%, 주택소유율 51%, 시부모와 동거가족이 15% 현존자녀가 2명 이하로 6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 개인특성은 도시주부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가정경제가 불만조건이 되어 부부금실에 문제가 되며, 농촌지역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어 부부친화도에 영향을 주었다. 결혼조건은 농촌에서는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혼과 결혼후 시부모와의 동거가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었다.

40대 부인중 남편이 장남인 경우 부부갈등이 많으며 종교의 차이나 남편만 종교가 있는 경우 보다 부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 부부친화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는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원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가정경제의 빈곤은 지역별, 연령별, 가족주기별 모두에서 위기문제요, 부부친화도를 낮추는 갈등과 불만의 요인이었다.

결혼기간별 부부관계의 불만족교차비는 결혼주기별로 변화하여 대략 M자형으로 달랐으며 부부친화도의 상호신뢰성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경우는 36% 서로 못 믿는 경우가 15%이었고 어느 한쪽이 믿는데 또 한사람이 못 믿는 경우가 각각 8%이었다.

자녀의 수는 도시부인의 경우는 소자녀형성으로 갈등의 요인이나 친화도에는 별 영향이 없었으나 농촌에서는 많을수록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결혼조건별 부부친화도는 초혼연령이 빠를수록 그리고 부모의 권유로 한 중매일때 나쁘고 부부의 연령차가 없는 동갑부부나 부인이 남편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친화도가 좋았다.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부부란 자발적인 인간관계중 가장 지속적이며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포괄적 관계로 개인당 약 42년간(공세권, 1990)지속되는 결혼기간을 동반자적 우애관계를 지속하며 공존하므로 이들의 친화도가 개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에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인이다.

결혼이라는 하나의 통념적 내지는 문화적 절차를 거쳐 처음은 부부로, 그 다음은 부모로 그리고 이어서 조부모로 이어지는 일련의 가족주기(Family Cycle) 속에서 호칭이 변함에 따라 부가되는 역할과 의무속에 회로애락을 포함한 인간생활사 모두를 수용하며 삶을 함께 공유한다.

그것도 지난 반세기동안 너무도 많은 사회, 경제 및 세계의 변화속에 가족구성, 역할, 기능, 의무 등 모든 면에서 때로는 발전되는 보건 의료의 혜택도 누리고 정보문화의 홍수속에서 계층의식과 갈등을 경험하며 산업혁명에 따른 공해 등 문명의 위기속에

서 매일 거침 생활의 질과 내용을 변화해가며 산다.

성혼연령이 되어도 결혼을 안하고 독립해 사는 단독가구가 아닌 한 결혼했다하면 준비도 없이 자녀출산이 시작되나 그 수가 제한되는 소자녀가치관속에서 주부도 사회의 일원으로 직업과 병행되는 이중적 삶을 살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긴 부부기 동안 자녀들의 혼인으로 자연스러운 독립이 되면 중년의 부부기, 말년의 노인고독기 등 예상치 못했던 삶을 살아낼 수 밖에 없도록 삶의 행태도 변화되고 있다.

원래 한국은 엄격한 가족제도에 의거, 1951년 일제의 민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합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은채(이태영, 1981) 일심동체니 부창부수니 하며 인내와 용서속에 부부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교육수준의 향상과, 개인역할의 다양화, 그리고 만혼 및 자율혼이 성행되면서 부부관계도 제도적 틀로만 묶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국적인 이혼건수가 1960년에 약 7천건에 불과하던 것이 1975년에는 약 23만건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약 40만건으로 같은 기간중 결혼 100건당 이혼율이 3.8에서 5.4로, 그리고 다시금 10.3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61, 1976, 1991).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불화가 거의 다수이고, 가족관계로 인한 경우는 3.3%로 나머지는 경제적(1.6%)이유나 건강상(1.2%)이유, 또는 기타 이유(10%)로 나타나고 있다(대한통계협회, 1992).

가족생활이 가족성원간의 공동협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역할 보완으로 이루어지면서 역할분담 내지 역할갈등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가족분화 내지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White, 1992). 그렇다고 모든 역할분담 내지 가족갈등이 가족의 분화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상대적 관계라면 이는 원초적 혈연관계와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전통가족이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절대시 하면서 단절의 가능성을 배제했으나 근대사회는 이혼은 결혼의 반대개념만이 아닌 자율혼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

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자율혼이 보편화되면서 부부관계도 개체성과 평등성을 기초로 우애관계를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인격적 불평등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의 하나로 이혼을 고려하고 또 실현하는 듯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부관계를 제도나 관념의 틀로만 고정화 시켜놓고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 하는 것은 가족의 안녕은 물론 가족생활의 질을 위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부부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들 관계가 가족생활에서 기초가 되고 있음은 가족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를 사적(私的)영역으로 여기면서 객관적 문제로 표면화하기 꺼려서 이에 대한 접근을 금기시하였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듯하다.

서구에서도 부부관계의 연구는 2차 세계대전이후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이혼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부부관계에 관한 한 이혼의 예방이라는 차원 보다는 여권(女權)의 신장이라는 관점(사회문화연구소, 1992)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관점에서 개인특성, 결혼조건 및 가정형편이 부부간의 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개인, 결혼 및 가족변수중 어떤 요인이 부부관계에 만족 내지 불만족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배우자 선택은 물론 부부관계 유지 및 가족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는데 초점을 두었다.

2.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와 과정에서 경제 사회구조는 물론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규범, 그리고 개인의 역할 및 가치관 등 모든 측면에

변화가 크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변화에 뒤따르는 문제는 무엇일까? 유물론(唯物論)적 견해로 인간생활의 궁극적 결정(moment)을 재생산과 생산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욕구인 종의 번식과 이에 따르는 의식주와 같은 생존수단의 생산이 그것일 수 있지만 전통사회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족이 공유해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는 생산기능은 물론 일부 복지기능까지 기업화 하면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개인역할의 다양화, 그리고 주거형태의 분화 등으로 가족생활이 또 다른 틀에 의한 질서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들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집단을 의미한다. 결혼을 통한 부부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모자식간의 유대와 협력을 통한 부양과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적 집단인 것이다. 공동체생활은 가족성 원간의 결속과 역할보완을 가능케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분화 내지 해체도 불사한다. 말하자면 가족내에서 부부간의 불협화는 공동생활이 어렵고, 낳은 자식을 양육할 수 없거나 또는 낳아준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을 때 가족의 해체는 물론 존립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생활이 성원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그 관계는 부부관계를 기초로 부모자식간, 또는 친족간으로 확산된다는 점은 부부관계가 애정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부양관계, 또는 사회적 생산관계로서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가족이라는 틀로만 한정시켜 근시안적으로 문제진단을 하려는데 무리가 있다. 가족생활이 사회 경제구조에 따라서 변할 수 밖에 없듯이 가족의 변화는 곧 부부관계의 변화를 뜻한다. 교육수준의 향상, 출산력의 감소, 개인 역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의 고취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부계제도가 양계제도로, 또 부자중심이 부부중심으로 서서히 변화하면서 가족간 유대약화와 함께 부부관계 역시 맹순적으

로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적 존재로 변화한다(Parsons, 1955, Goode, 1963). 이 외에도 가정과 일터의 분리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며 여성취업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자립은 더 이상 결혼이 필수적인 생존조건만도 아니고, 이혼도 전혀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는 의식(Myrdal and Klein, 1956)을 가능케 하면서 부부관계는 일정한 규범적 틀로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조건이 되었다.

결국 결혼의 이유가 다양해지고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로 지향되는 현대가족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부부가 서로 어떻게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는 주요관심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결혼이 복을 전제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던 결혼관행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기대는 정서적 안정이나 사랑 및 행복추구, 또는 생활의 편의성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독신의 장점은 개인행동 및 사회 활동에서의 자율성으로 생각하고 또 구속이나 부양역의 해방도 장점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자율에 대한 구속인 반면 구속된 생활에서 안정과 사랑 그리고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부부관계란 항상 적응과 갈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불신과 불만 등 부정적 측면을 내포한다. 긍정적 측면은 애정과 만족,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의미하며, 부정적 측면은 구속, 억압, 그리고 대립의 갈등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은 결혼 자체가 선택적임을 감안할 때 개인특성 내지는 가족조건 등에 의한 복합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개인특성 및 가족조건이 모두 또는 각기 부부관계중 친화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부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 “매우 나쁜 경우”,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가정적으로는 나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만 가정적으로는 좋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분석대상

으로 삼았던 7,081명 부인들의 응답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가정경제수준이 부유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서로 결부시켰을 때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가 좋으면서 가정형편도 부유한 경우(57.2%) 부부의 친화도가 높은 반면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8.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상과 같은 점이 부부관계에서 특정 시점의 단편적 측면이라면 역동적 측면(Lewis and Spanner, 1979)은 가족주기를 기초로 결혼조건, 가족특성 그리고 부부관계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결혼조건은 부부의 개인특성이나, 가정배경을, 가족특성은 결혼으로 인한 가족규모, 생활수준 및 성원의 역할관계 등을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인간관계, 역할보완 및 상호 만족 등이다. 그러나 결혼조건, 가족특성 또는 부부관계도 엄밀히 따져보면 개인들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결혼의 질 내지 결혼생활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관계에서 만족과 불만족은 특정 조건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개인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기대나 실제 결혼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냐는 점은 주요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근대혼이 개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혼조건 내지 가족특성이 부부친화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 말은 전통혼을 제도혼으로 생각한다면 근대혼은 자율혼의 형태로 부부친화관계는 부부만의 상대적 관계와 결혼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한 가문간 조혼현상이 산업화에 따라서 개인간 만혼현상으로 바뀌면서 결혼조건 역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따져지고, 부부관계는 종속관계가 평등관계로, 또 가족형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가 지향되는 상황에서 부부

관계는 당사자들간의 노력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가족이 전통가족에 비해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가족의 문제를 이혼이나 유기 및 사회적 가정파괴로 인한 결손가족의 증가나 가족자체의 부양체계의 와해 등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점은 결혼 및 부부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결국 부부관계는 당사자간의 상대적 관계인 부부금실 즉, 친화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의 여러 변수 즉 부모자식 및 친족간의 관계에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동안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가부장제 사회안에서 권력관계로 본 이은숙(1992), 권희완(1992) 등의 연구가 있고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는 최신덕(1986), 이동원(1988), 박민자(1988)에 의해 연구되었고 평등성에 근거한 부부관계 및 가족주기별 부부관계의 연구는 김정원(1974,1987), 임정빈·이종숙(1989), 이숙현(1990), 이광자·유희순·변화순(1992) 등의 연구와 일제시대의 부부관계는 신영숙(1992) 등의 연구결과가 담겨있는 1992년 사회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가 있다. 결혼만족도와 결혼생활의 적용 등에 대한 연구는 김명자(1977), 홍신례(1987), 양명숙(1991), 박숙자(1992)가 있으나 부부간의 친화도는 연구된 바 별로 없다.

3.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그림 1은 연구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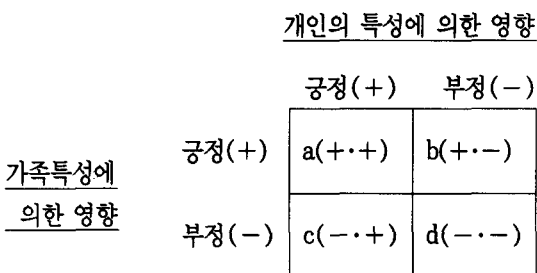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모형

여기서 a는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이 모두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는 가족특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특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c는 개인특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특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d는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를 모델로 하여 분석한 부부관계의 친화도와 가정형편간의 관계분석은 그림 2와 같다. 부부친화도는 가정형편이 부유하고 부부관계가 만족할수록 부부의 친화도가 높았다.

부부관계

		만족	불만족	
가정 형편	부유	57.2%	15.9%	73.1%
	가난	18.7%	8.2%	26.9%
		75.9%	24.1%	100.0%(7,081)

그림 2. 부부관계의 친화도와 가정형편간의 관계

2) 연구자료

본 분석에서 이용된 자료는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 자료이다. 동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178개 조사구에서 이들 지역내의 12,367가구와 동 가구내의 15-49세 기혼부인 7,462명 및 18-34세 미혼 남녀 3,71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가구조사는 가족특성을 중심으로, 부인조사는 출산행태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혼조사는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은 조사당시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을 제외한 유배우가임부인 7,0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과 부부간 친화도와와의 관련내용만을 분석한 것이다.

동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삼은 부부간의 친화도는 부인을 대상으로 질문한 조사항목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집안일이나 자녀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 하시는 편입니까? ② 아주머니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놓고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까? ③ 아저씨께서는 비교적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편입니까? ④ 아저씨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무엇이든 다 말해주는 편입니까? ⑤ 아주머니께서는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안을 받는 편입니까?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들 응답은 각각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등간 구분외에 ⑥ 모르겠다 등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응답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질문항목별 부부관계의 친화도 분포

질문 내용	긍정적인 응답 (1+2)	부정적인 응답 (4+5)	보통 및 무응답 (3+9)
Q1	76.7 (28.8)	9.2 (8.7)	14.1 (13.8)
Q2	72.4 (24.5)	13.3 (12.4)	14.3 (14.2)
Q3	67.1 (20.4)	13.6 (12.4)	19.4 (19.2)
Q4	51.5 (16.1)	17.7 (14.7)	20.9 (19.6)
Q5	51.4 (12.3)	27.1 (22.6)	21.4 (20.5)

주1) : 질문내용에서 Q1은 집안일이나 자녀문제에 대한 논의 정도, Q2는 부인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남편과의 대화정도, Q3은 남편의 부인의 이야기에 대한 경청정도, Q4는 남편이 부인에 대한 대화빈도, 그리고 Q5는 부인이 느끼는 남편으로 부터의 안위정도임.

2) : 응답결과에서 ①은 매우그렇다 ②는 그렇다 ③은 그저그렇다 ④는 그렇지않다 ⑤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며, ⑥는 무응답임.

이러한 질문에서 각각의 응답결과를 보다 단순화시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1+2)한 긍정적인 경우는 51.4-76.7%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4+5)한 부정적인 경우는 9.2-27.1%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 부부관계의 친화도는 그저 그렇다거나 무응답의 경우는 14.1-21.4% 범위로 약 2/3에 해당하는 부인은 부부관계가 긍정적인 반면 나

머지는 보통이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내용 별에서 편차가 큰 만족 또는 불만족을 단일 종속변수로 조작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는 다섯 가지 질문내용의 응답결과를 단순합산할 경우 각각의 질문내용에서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으며, 둘째는 응답결과에서 “매우 그렇다”나 또는 “그렇다”로 편향된 점을 기초로 하였을때 정규분포나 등분포와 대치되는 단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수전환(logarithm transformation)이나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항목변수화(nominalize)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권희완,1992, 김현주,1992)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동일한 조건(cohort), 이를테면 연령계층 내지 결혼시기별로 부부간의 만족과 불만족은 남편과의 대화를 기초로 불만족에 대한 만족의 상대적 대비(odds ratio)가 어떤 요인(설명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불만족집단을 “1”로 하고, 만족집단을 “0”으로 이분화(二分化)하여 종속변수를 도출한다면 분석결과도 설명력의 유의성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의 단일화는 이상의 다섯 가지 질문내용중 두가지 이상을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부부관계의 불만족 집단으로 보고, 또 네가지 이상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대상중 만족집단이 50%, 불만족집단은 24%, 그리고 “그저 그렇다”와 분류미상 집단은 26%이었다.

3) 변수 및 범주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그 범주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부부관계에서 만족 및 불만족과의 대비(odds ratio)로, 그리고 독립변수는 개인특성으로 남편과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를, 결혼조건으로는 초혼연령, 형제순위 및 결혼결정을, 그리고 가족특성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주택의 소유여부, 부부의 종교 및 현존

자녀수 등으로 하여 이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나 하는 점을 회귀분석(logit regression)에 의하여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실제 전체 대상의 79%가 도시에 거주하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0%(남편:68.0%, 부인: 51.3%)를 상회하며, 부인의 초혼연령은 24세 미만이 75%, 부부간의 연령차가 없거나 남편이 적은 경우가 11%이었다. 또 가족특성으로는 남편이 장남인 경우는 45%, 부인이 장녀인 경우는 41%, 그리고 부모의 뜻에 의한 결혼결정은 34%이었다. 또 남편이 종교를 가진 경우가 52%, 부인이 62%이며, 주택소유율은 51%이었고, 이웃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4%이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5%, 현존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70%였다(표 3).

표 2.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 및 범주

변 수	범 주	
종속변수 부부간 친화도	1. 나쁘다	0. 좋다+보통
독립변수 남편의 교육	1. 중졸이하	0. 고졸이상
부인의 교육	1. 중졸이하	0. 고졸이상
부부간 교육차이	1. 3년이상	0. 2년이하
초혼연령	1. 24세이하	0. 25세이상
남편의 직업	1. 서비스직, 육체노동	0. 사무직
부인의 취업	1. 취업	0. 비취업
남편의 종교	1. 없다	0. 있다
부인의 종교	1. 없다	0. 있다
부부간의 종교차이	1. 한쪽만 종교활동 0. 모두 종교활동 및 모두 무종교	
부부간의 연령차이	1. 동갑/연하	0. 1세이상
결혼결정	1. 부모결정후 본인승낙 0. 본인결정후 부모승낙	
장남여부	1. 장남	0. 차남이하
장녀여부	1. 장녀	0. 차녀이하
주택소유	1. 타가	0. 자가
경제상태	1. 가난하다	0. 잘산다/그저 그렇다
시부모와의 동거	1. 동거	0. 비동거
현존자녀수	1. 3명이상	0. 2명이하

표 3. Definit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Variables	Urban Rural Total			
	Variables	Urban	Rural	Total
Husband's Edu(≥high sch)		75.4	45.9	68.0
Wife's Edu(≥high sch)		57.7	34.1	51.3
Type of husband's Occ.(white)		63.9	33.7	43.7
Wife's Occupation(having)		31.3	44.7	34.7
Wife's First Marriage(<24)		73.4	81.8	75.4
Age difference(wife≥hus)		11.4	10.7	11.2
Brother's Order(eldest)		42.9	50.5	44.8
Sister's Order(eldest)		40.7	41.3	40.9
Marriage Decision(on parents)		29.8	46.5	34.0
Husband's Religion(having)		51.6	51.4	51.5
Wife's religion(having)		62.0	59.5	61.4
Ownership of Dwelling(owner)		45.3	67.7	50.9
Economic Status(not difficulty)		71.5	81.1	73.9
Coresidence(with parents)		12.3	23.7	15.2
No of Children(<2)		74.6	54.8	69.7

II. 본 론

1. 분석 및 고찰

1) 결혼행태

결혼은 남편과 부인으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부부관계는 결혼조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결혼조건은 대개 결혼대상자의 인간성을 중심으로 가족특성, 교육배경 및 사회적 지위 등이 고려되며, 그 절차는 가족제도 내지 사회규범에 따른 관행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전통혼은 부모의 뜻에 의한 제도혼으로서 부부관계는 개인의 의지적 선택보다 부모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일 수 있지만 근대혼은 개인의 뜻에 의한 자율혼이 성행되면서 부모에 의한 영향보다는 당사자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다. 결혼구조 및 결혼행태중 결혼시기는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율의 증가 등 혼전역할이 다양화되면서 만혼의 성향을 나

타내고 있다. 1960년만 해도 20-24세 여성은 약 반수가 결혼을 했고, 25-29세의 여성은 92%가 결혼을 했으나 1990년은 20-24세 여성중 1/5만이 결혼을 하고, 25-29세에서는 80%가 결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평균 초혼연령은 1960년 남자가 25세, 여자가 22세였던 것이 1990년에는 남자가 28세 여자 25세로 연장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이룰수록 결혼은 누구나 다 해야만 한다는 개혼관념(皆婚觀念)내지 조혼현상이 산업화에 따른 혼전역할의 다양화로 선흔관념(選婚觀念)과 함께 만혼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행태의 변화는 결혼시기 뿐만 아니라 성혼과 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혼이 가문간 또는 이웃간의 중매혼이었다면 근대혼은 학교나 직장 등 사회관계에 의한 자율혼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결혼대상을 이웃이나 친척 또는 중매인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 결정을 부모의 뜻에 의존했던 것이 학교나 직장 또는 친구 등 사회관계로 결혼대상을 알게 되고, 또 이들은 일정한 친교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혼의 형태가 그것이다.

표 4. 결혼과 관련된 일부 여성지표의 변화

일부 여성지표	1960	1970	1980	1990
인구의 도시거주율(%)	28	41	57	74
고교이상 학력율(%)	35	62	78	85
경제활동 참여율(%)	25	37	41	46
연애에 의한 결혼결정(%)*	14	22	31	42
자의에 의한 결혼결정(%)*	21	55	84	89
부인당 합계출산률(명)	6.0	5.2	4.6	3.6
여성당 평균수명(세)	58	67	69	75

주 : *에서 1960년은 1964년 이전, 1970년은 1970-1974년, 1980년은 1980-1984년, 그리고 1990년은 1990-1991년간의 결혼코호트에 의함.

자료 :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를 인용함.

결혼조건 역시 전통혼에서는 가문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시하던 것이 가문혼으로 근대혼인 인성(人性)이나, 애정, 또는 능력을 중시하면서 자아실현 내지 행복추구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조애저 외, 1992). 이처럼 만혼 내지 자율혼이 성행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독신을 및 이혼율의 증가이다. 즉, 개혼의식(皆婚意識)이 선흔의식(選婚意識)으로 바뀌면서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혼조건을 조성하지 못하여 혼기를 늦추거나, 또는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호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혼과 관련된 일부 여성지표의 변화(표 4)에서와 같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1960년에 22세였던 것이 1990년에는 25세로 상승하면서 1960년 25-29세에서 미혼율이 남자가 37.7%, 여자가 1.9%였던 것이 1990년에는 남자가 57.3%, 여자가 21.8%로 증가하였고, 또, 같은 기간에 30-34세에서의 미혼율도 남자가 4.7%에서 13.7%로, 여자는 0.6%에서 5.6%로 증가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혼시기에 이른 25-34세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관 조사(그림 3)에서 결혼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울은 여성이 5%에 달하고, 남성은 2%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는 최근 일본의 경우(IPP, 1989)와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25세인 점을 감안하여 25-34세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결혼의사와 미혼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12.7%가 결혼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14.8%는 결혼을 원치 않지만 가정이나 사회적 이유로 하겠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앞으로도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결혼의사

하겠다(+), 않겠다(-)

미혼여유	결혼여건 (+)	70.4% (a:+++)	2.1% (b:-++)	72.5%
	결혼불원 (-)	14.8% (c:+--)	12.7% (d:---)	
		85.2%	14.8%	100.0%

그림 3. 결혼적령기(25-34세) 미혼여성의 향후 결혼의사

주: 여기서 a는 결혼할 생각과 결혼여건이 가능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며, b는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학업이나 직장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결혼자체를 미루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결혼여건은 가능하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이며, d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할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율혼이 성행되면서 이혼에 대한 금기의식도 허용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60세이상 부인에서 75%를 상회하고 있지만 30세 미만 부인은 40%에 불과하다. 특히 이혼에 대한 허용의식으로 “이혼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20대에서 57%에 달하고 있지만 60대에서는 21%로 젊은 고학력층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혼 가능한 사유로는 성격차이(51%), 학대 및 폭력(23%), 배우자의 부정(17%) 등(공세권 외, 1990)으로 제시되며, 이는 실제 이혼사유와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실제 결혼당 이혼율은 1960년의 4%가 최근에 이룰수록 가속화되어 1991년 12%로(서문희, 1993)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3배나 증가했고, 이혼은 남편의 초혼연령이 20세 이전이나 35세 이후인 경우와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결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부부관계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부부관계는 당사자들간의 양자관계(dyad)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자관계는 원초적으로 양가(family of orientation)의 가족관계를 포괄하며, 이들은 자녀를 됴으로써 삼자관계(triad) 내지 또는 사회관계 등으로 뒤엎히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진전한다. 이러한 점은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가 지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결속이나 지속이 개인 및 가족의 안정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부부관계는 애정을 기초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노력을 필수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관계의 와해나 단절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사회는 미묘한 부부관계마저 이혼을 금기시하는 가족제도로 완충장치를 삼기도 하였지만 근대사회는 개인역할의 다양화와 함께 자율성 및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부부관계도 제도나 규범적 틀로 묶어둘 수만 없게 된 것이다.

부부관계는 양자간의 적용과 갈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내포한다(Skolnick, 1983). 여기서 적용을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호만족으로, 갈등은 불화와 대립에 의한 긴장으로 볼 때 이러한 두가지 측면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유지는 부부가 가족제도에 의한 관계로 개인간 또는 가족간의 복합적인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관계는 당사자간의 애정관계를 뜻하며, 가족관계는 부모자식간의 부양관계 모두를 의미한다. 가족제도가 재생산과 생산을 구조화하면서 공동의 삶을 위한 틀로 일정한 규칙을 필수로 하듯 그러한 틀속에서 부부관계도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나 규칙도 객관적으로는 공평성을 표방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불평등 내지 규제요건이 된다. 이러한 점은 부부관계에서도 표면적 자율과 평등이라는 이면에 구속과 불평등이라는 이중구조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갈등의 극복

이나 이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는 관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왜 하나 단절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부부관계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단절보다는 인내와 양보 내지는 무관심으로라도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계유지는 화합과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가부장적 여필종부의 의식에 길들여진 관계인 것

이다. 부부는 결혼과 출산, 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성혼기를 거치면서 부부기를 연장해 산다. 표 5는 가족주기를 기초로 한 배우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동 표에서 1935-1944년간 결혼코호트는 16세에 결혼한 부인인 남편사망시에 54세인 점으로 부부기만 39년이 된다. 그러나 1985-1991간 결혼코호트에서는 24세에 결혼한 부인의 남편사망시 연령이 70세로 부부간 생활기는 약 46년간이 되는 셈이다.

표 5. 기혼부인의 결혼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평균연령

결혼 코호트	가정형성기시 연령		가족확장기시 연령		가족축소기시 연령		가족해체기시 연령	
	남편	부인	첫째	막내	첫째	막내	남편	부인
1935-1944	20.8	16.1	20.2	35.7	45.0	60.5	54.7	60.6
1945-1954	22.5	17.9	21.1	33.7	46.6	59.2	56.6	63.6
1955-1964	24.3	20.4	22.3	31.4	48.5	57.6	59.0	66.6
1965-1974	26.3	21.8	23.3	28.3	49.5	54.5	64.7	72.3
1975-1984	26.4	22.6	23.8	26.0	50.0	52.2	67.2	74.4
1985-1991	27.6	24.4	25.5	26.8	-	-	69.7	76.3

자료 : 공세권의,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공세권의,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이처럼 부부관계를 특정 시점의 단편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제한점이나, 생활주기를 기초로 복합적 또는 역동적 측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도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통계되지 않는 자율적 부부관계속에서 양자간의 화합과 적응 또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반복하지만 결혼후 1년간이 결혼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고, 이 기간중 적응에 실패할 경우는 갈등관계를 지속하다가 3년째에 이혼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게 된다(Duvall, 1977, 서문희, 1993). 이러한 점은 본 분석에서도 결혼기간 4년내를 기준으로 할 때 5-9년간은 상대적 불만비가 1.43으로 증

가하고, 10-14년간은 1.40으로 감소하다가, 그 후 다시 증가 및 감소한다. 즉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간 불만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상승과 하강의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연령별 부부간의 불만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24세 이전의 부부를 기준으로 본 25-29세에서의 불만율은 약 28%이며 30-34세는 68%로 증가한다. 부부간의 불만비는 결혼후 계속 상승되다가 30대 초기에 정점을 이루면서 감소를 나타내고, 4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룬 후 다시 감소하는 "M"자형이다.

표 6. 연령 및 결혼기간별 부부관계의 불만족 교차비

결혼기간 및 연령	표본수	불만율(%)	교차비
결혼기간 -4	1,407	19.0	1.00
5-9	1,526	25.1	1.43
10-14	1,544	24.7	1.40
15-19	1,194	25.2	1.44
20-24	912	24.5	1.39
25-	522	28.2	1.77
연령 -24	381	17.6	1.00
25-29	1,457	21.4	1.28
30-34	1,786	26.0	1.64
35-39	1,484	24.0	1.48
40-44	1,162	24.4	1.51
45-49	839	27.7	1.75

부부불만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나타나고, 이는 적응단계를 거치지만 자녀양육이 끝나는 40대 후반에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면서 갈등을 느끼다가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의존관계를 갖는 것이 '가족주기'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생애 주기에서 부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나보다. 이러한 점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위한 노력없이 제도적 관계로만 지속하려는 경향에 의한 점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서 부부는 양자간의 관계에서 보다 자녀 내지는 친족이나 사회에 더 관심을 두면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러한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부부들은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관계에서보다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과 말은바 역할의 구분, 권력구조의 편재 등 가족관계에서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사회문화연구소, 1992). 부인을 가정중심의 현모양처로, 또 남편은 대외적인 생계지원자를 이상형으로 삼으면서 부부간 대화는 개인문제보다 가족문제가 중심이 되어, 의견충돌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그림 4는 본 연구가 종속변수로 삼았던 다섯가지 질문내용중 두가지 질문내용을 교차시켜 부부간 대화의 신뢰성을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 부인이 느끼는 남편에 대한 신뢰도와 남편이 부인을 대하는 신뢰도가 상호일치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며, 불일치가 15%,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부인은 남편을 신뢰하고 있지만 남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와 남편은 부인을 신뢰하고 있지만 부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로 각각 8%를 나타내고 있다.

부인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안을 받으십니까?

그렇다 (+) 그저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남편께서는 부인에게 무엇이든지 다 말해 주는 편입니까?	그렇다 (+)	a(+·+) 36	b(+·△) 8	c(+·-) 8	52	
	그저그렇다 (△)	d(△·+) 8	e(△·△) 7	f(△·-) 5		20
	그렇지않다 (-)	g(-·△) 8	h(-·△) 5	i(-·-) 15		
		52	20	28	100(6,964)	

그림 4. 부부친화도에서의 상호신뢰성

주: 여기서 a는 상호 신뢰의 부부관계(36%)이고, i는 상호 불신의 부부관계(15%), c와 g는 남편은 부인을 신뢰하고 있지만 부인은 그렇지 않거나(8%) 부인은 남편은 그렇지 못한 관계(8%), 그리고 b,d,e,f,h 는 평범한 관계(33%)일 수 있다.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부부관계는 가족이 변하면서 그 관계도 변화하게 된다. 사회경제구조가 변하면서 가족기능의 축소, 개인역할의 다양화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중심이 부부중심으로, 역할협력은 역할보완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출산력의 감소, 그리고 가사역할의 기계화 등으로 가사노동의 경감과 함께 부인들이 자녀교육, 대인관계 및 취업역할까지 감당케 된데서 비롯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사역할만을 전담해 왔던 부인들이 사회역할까지 감당하면서 다변적 역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부인역할의 다양화는 그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가족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이는 부부친화도를 낮출 수도 있는 하나의 변수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부부관계는 전통적 역할종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역할보완의 관계로 부부평등이라는 특정 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갈등도 불가피한 요인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3) 갈등요인

부부갈등은 대개는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 불협화나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느끼는 상대적 감정이다. 평등에 대한 불평등이나, 자율에 대한 속박, 소유에 대한 박탈, 또는 기대에 대한 실망 등이 그것이다. 개인간 또는 집단간에 이익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처럼 부부간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부부갈등이다. 부부관계는 원초적 이성간에 사랑을 기초로 결합한 공동체적 관계이며, 개체성이나 자율성, 또는 평등성 등은 사랑에 의한 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랑과 애정은 상대성을 내포하듯 부부관계 역시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상징적 사랑이라는 굴레는 또 다른 공동체적 삶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호 협력 내지 역할보완으로 유연한 적응이 요청된다. 여기서 적응은 일정한 조건, 즉 개인특성, 결혼조건, 가정형편 등과 상호양보를 뜻하며, 기대에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나 일방적 주장은 갈등의 소

지가 될뿐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부부들의 개인특성, 결혼조건 또는 가정형편 등이 부부친화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즉 부부들의 연령 및 결혼기간을 통제변수로 삼았을 때 설명변수인 개인특성, 결혼조건 및 가정형편 등이 부부친화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것이다. 여기서 개인특성은 부부들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취업여부 및 남편의 직업 등으로 구분했고, 결혼조건은 초혼연령, 부부간 연령차이, 형제순위 및 결혼결정권으로, 그리고 가정형편은 주택소유 여부, 경제수준, 자녀수 및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은 로짓 회귀모형(logit regression model)에 의한 지수화의 상대비(odds ratio)로 구했다. 로짓 회귀모형에 의한 지수화 추정치 = $\exp(w)$ 로 여기서 w 는 logit모형의 추정계수가 된다.

다음 표 7은 전국적으로 부인의 연령별 개인특성, 결혼조건 및 가정형편이 부부친화도에 미치는 상대적 교차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인특성중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초기에 갈등이 많았다(표 8). 그러나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는 결혼전에 인지된 사실로 부부친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편의 직업은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30대에서 친화도요인으로 작용되고 부인이 직업을 가졌을 경우는 갖지 않은 경우보다 20대의 고출산기에서 임신 및 출산 등이 취업과 가사의 이중역할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편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40대에서 부부간 친화도에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40대초기에 오히려 부부만족에 유의성을 나타내어 친화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 종교의 차이는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결혼여건이 부부간 갈등에 미치는 요인은 먼저 초혼연령이 빠를수록 결혼초에 불만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즉 24세 미만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결혼초기인 25-29세에서 불만율은 1.5배에 이르며, 그 후 부터는 점차 적응상태를 나타내고, 부부간 연령차이는 부인과 남편이 같거나 부인이 남편보다 많은 경우 특히 20대에서 만족요인이 되고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양상이다. 결혼요건중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의 권고로 이루어진 중매혼에서 부부간 친화도가 낮아지며 갈등이 심한 점이다. 중매혼은 결혼초기인 20-30대 부부에서 갈등이 심하다. 그러나 형제순위에서 남편이 장남인 경우는 부부관계에 불만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20대에서 만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가정형편이 부부간 친화도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가정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떤 연령층에서나 부부친화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결혼초기인 24세 미만에서 가정경제문제는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표 8) 그 후 부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40대 후반에서 내집 장만이 어려웠던 경우는 부부간 불만에 영향을 미친다. 시부모와의 동거는 연령별로 부부간의 친화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친화도에 영향은 연령별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갈등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부부관계에서 불만은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혼, 주택소유 여부, 남편의 종교유무, 경제상태 등과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경제, 다음은 교육수준 및 남편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혼이다. 그러나 부인의 연령이 남편과 같거나 많은 경우와 부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부부간 만족요인이 되어 친화도를 높여주었다.

표 7. Estimated Age-Specific Parameter by Logit Regression Model in terms of Odds Ratio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Unsatisfaction

Variables	Age			
	-29	30-39	40-49	Whole Age
Husband's Edu. (≤middle sch)	1.095	1.300***	.997	1.169***
Wife's Edu. (≤middle sch)	1.004	1.140 ⁺	1.182	1.127*
Difference(Education)	1.058	1.039	1.095	1.062
Husband's Occu.(blue type)	1.026	1.070*	1.026	1.037*
Wife's Occu.(having)	1.200 ⁺	1.052	1.034	1.071
Wife's Age at Marriage	1.482**	.990	1.025	1.088
Age Difference(wife ≤hus)	.701	.864	.973	.866 ⁺
Marriage Decision(on parents)	1.500***	1.140 ⁺	1.044	1.143**
Brother's order(eldest)	.970	1.047	1.053	1.033
Housing(not owner)	1.032	1.105	1.240*	1.112*
Husband's Religion(none)	.918	.991	1.601***	1.168*
Wife's Religion(none)	1.096	.891	.617	.802***
Difference(Religion)	.935	1.062	1.072	1.030
Economic Status(poor)	1.406***	1.398***	1.503***	1.446***
Coresidence with Parents(with)	1.165	1.122	1.104	1.130 ⁺
Nof Children(>2)	1.333	.977	1.062	1.004
Intercept(Coefficient)	-1.834	-1.528	-1.700	-1.658
N of Cases	1779	3210	1961	6950

Note : p⁺<0.10 p* <0.05 p** <0.01 p*** <0.001

부인들이 느끼는 개인, 결혼 그리고 가족요인별 부부간의 친화도에 관한 지역별 차이는 표 7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중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일수록 30대에서 부부갈등을 더 느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나 부부간 교육차이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남편의 직업 역시 도시 부인에게서 부부간 갈등요인이 된다. 즉, 남편이 서비스직 또는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사무직에 종사할수록 30대에서 부부갈등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취업은 농촌의 30대 취업 부인에서 비취업부인보다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요인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의 20대 부인에게서 초혼연령이 빠를수록 갈등요인으로 친화도에 작용하며 농촌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부간에 연령차이는 차이가 적을수록 부부친화도가 좋았고, 이러한 점은 중매혼일수록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남편의 형제순위는 장남일수록 도시의 40대 부부에게서 부정적 요인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반면 농촌의 40대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한편 부부간에 종교관계는 도시지역의 경우 남편이 종교를 가진 경우일수록 40대에서 부부친화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인만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부부간의 종교차이도 부부친화도에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

가정형편이 부부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부부일수록 도시지역에서 부부친화도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농촌지역은 대부분 자기집을 가진 관계로 부부친화도에 긍정적 요인이 되었다. 가정경제는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가난한 경우일수록 부부친화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농촌지역의 40대에서 시부모와 동거할 경우일수록 갈등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존자녀수는 대부분의 부부가 소자녀 형성으로 부부친화도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친화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남편의 교육과 직업이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부인취업이 부부갈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결혼조건은 농촌지역에서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혼이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며, 남편이 장남인 경우는 도시의 40대에서 부정적 요인이거나 농촌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며, 종교관계는 도시지역에서 남편이 종교를 가진 경우와 부부간 종교의 차이가 부부관계에 부정적 요인이 되지만 부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긍정적 요인이 되었다. 또 가정형편은 가정경제가 지역을 막론하고 부부친화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시부모와의 동거는 농촌지역에서 부정적 요인이 된다.

표 8. Estimated Age-Specific Parameter by Logit Regression Model in terms of Odds Ratio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Un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Age						Total
	-24	25-29	30-34	35-39	40-44	45-49	
Husband's Edu.(≤middle sch)	.826	1.238	1.358**	1.297*	.902	1.167	1.169**
Wife's Edu.(≤middle sch)	1.383 ⁺	.770 ⁺	1.283*	.959	1.606***	.832	1.127*
Difference(Education)	1.098	1.095	1.004	1.112	.821	1.548***	1.062
Husband's Occu.(blue type)	.999	1.065	1.067 ⁺	1.079 ⁺	.953	1.069*	1.037*
Wife's Occu.(having)	.867 ⁺	1.328*	1.091	1.034	.966	1.167	1.071
Wife's Age at Marriage	...	1.647***	.963	.999	1.019	.951	1.088
Age Difference(wife≤hus)	.669	.681*	.919	.774	.998	.995	.866 ⁺
Marriage Decision(on parents)	.941	1.577***	1.057	1.298**	.893	1.292 ⁺	1.143**
Brother's order(eldest)	.851	.984	1.055	1.019	1.031	1.070	1.033
Housing(not owner)	3.066**	.915	1.164	.991	1.18	1.264	1.112*
Husband's Religion(none)	.647	.997	1.072	.935	1.711***	1.636**	1.168*
Wife's Religion(none)	1.384	1.057	.804	.975	.516***	.735	.802***
Difference (Religion)	.920	.948	1.083 ⁺	1.023	1.033	1.077	1.030
Economic Status(poor)	1.355***	1.439***	1.323***	1.550***	1.646***	1.387	1.446***
Coresidence with Parents(with)	1.661	1.149	1.053	1.202	1.161	1.062	1.130 ⁺
Nof Children(>2)	9.928**	1.101	1.262 ⁺	.894	.916	1.365 ⁺	1.004
Intercept(Coefficient)	-2.368	-1.838	-1.562	-1.492	-1.440	-2.130	-1.658
-2 * Log Likelihood Ratio	363.2	1415.0	1740.5	1464.9	1137.8	813.2	6947.0
Prob.	0.264	0.376	0.392	0.393	0.389	0.383	0.450
N of Cases	363	1416	1742	1468	1142	819	6950

Note: p⁺<0.10 p* <0.05 P**<0.01 P***<0.001

III. 결 론

부부란 결혼에 의해 맺어진 남남의 관계로 자발적인 인간관계중 가장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이며 동반자적 우애관계를 지속하는 한가정의 주인들로서 이들이 약 50여년간 지속하는 부부기중 가족형태 및 개인특성이 부부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여 부부관계유지 및 가족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구자료는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를 위해 설계, 조사된 내용중 결혼경험유배우중 사별, 이혼, 별거 등을 경험한 부인을 제외한 총 7,081의 자료만을 재분석하여 회귀분석에 의해 검토한 결과이며 부부의 친화도를 종속변수로, 개인특성 및 결혼, 그리고 가족행태를 독

립변수로 분석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조사집단의 특성은 79%가 도시거주자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1.3%로 24세 미만에서 75%가 결혼했으며 부모의 뜻에 의한 중매혼이 34%이고, 45%가 장남과 결혼하였으며 시부모와 동거가족이 15%, 현존자녀 2명 이하로 취업주부가 35%이며 6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2. 결혼적용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결혼1년이고 결혼 5-9년경 불만비가 1.43로 가장 높았다가, 10-14년경 1.40으로 감소하다 그후 다시 증가 그리고 감소하는 등 결혼주기별로 M자형의 굴곡을 나타내었다.
3. 부부간 대화의 신뢰성은 상호일치하는 경우가 36%, 불일치가 15%, 부인은 남편을 신뢰하나 남편이 부인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와 이 반대의 경우가 각각 8%이었다.
4. 개인특성별 부부간의 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인일수록 결혼초기에 갈등이 많으며 남편의 직업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와 20대 고출산기 취업주부의 경우 부부갈등으로 부부금실에 영향을 주며 남편만 종교를 가지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 보다 부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 40대초기 부부에게서 부부간의 만족과 친화도가 좋았다.
5. 결혼조건별 부부친화도는 초혼연령이 빠르고 부모의 권유로한 중매혼일때 나쁘고 부부의 연령차가 없는 동갑부부나 부인이 남편보다 많을 경우 부부금실이 좋았다.
6. 가정경제는 연령별, 지역별, 가족주기별 조건에 관계없이 부부친화도에 장애요인이며 특히 20대 고출산기 40대후반에서 내집 장만을 못할 때 더더욱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7. 자녀의 수는 소자녀의 도시거주부부에게서 갈등의 요인이되나 농촌거주부부는 오히려 많을

수록 친화도가 좋았다.

8. 시부모와의 동거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에서 오히려 불만족요인이 되어 부부친화도에 부정적 요인이 되었고 40대 장남의 부인에게서 갈등이 높아 부부친화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1.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제연구소.
3. 김현주(1992). "Gender Role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Coupl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1. No2. Dec.
4. 보사부(1992). 보건사회백서. 354-359.
5. 사회문제연구소(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한국여성사회연구회편.
6. 이태영(1989).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 조에저(1992). 1991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최근 한국여성의 결혼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통계청(1960, 1966, 1975, 199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9. 한국통계협회(1992). 한국의 사회지표.
10. Andrée Michel 지음, 변화순, 김현주 옮김: (1991). 결혼과 가족의 사회학.
11. Duval E.(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12. Fichman D. Frank, et.al(1981).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3. Goode, W. J.(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Free Press.

14. IPP(1989). 厚生省(昭和62) 獨立青少年の結婚視II, 人口問題研究所.
15. Levis, R. A. and G. B. Sparrier(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esley R. B. et.al(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Based theories(I), New York, Research Free Press.
16. Myradad A. and V. Klein(1956). Women's: Two Roles. Routedledge and Kegan Poul.
17. Parson T. and R. F. Bale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 Col III: Free Press.
18. Skolnick, Arlene(1983). The Intimate Environment ; Epilering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Little Brown and Co.
19. White, Lok(1990). "Determinants of Divorce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Abstract>

The influence that Family Typ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have on the husband-wife
Marital on Satisfaction Degree between couple

Cho Ka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husband-wife Marital on Sastisfaction is the important influence factor for stable home, family happiness and family management.

As for the marital on satisfaction degree between husband-wife about 7,081 who have spouse and can married woman, the satisfaction degree was low, due to home economy state, education level difference from spouse, husband's job, arranged marriage based on parents advice, case that husband is the eldest son, case of wives who have job, conflict and dissatisfaction.

In case that they trust and idealize mutually and wives have religion, their satisfaction degree was good.